

이광수의 장편소설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사적 인식의 차이 고찰*

-『무정』, 『개척자』, 『혁명가의 안해』, 『흙』 등을 중심으로

오태호**

목차

1. 서론
2.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와 ‘부르주아 계몽사상’ 사이 - 『무정』
3. 관념주의적 시각의 한계와 ‘사회악에 대한 불만’ 사이 - 『개척자』
4. 풍자적 반공주의와 ‘혁명가에 대한 비방’ 사이 - 『혁명가의 안해』
5. 민족주의적 계몽의식과 ‘친일적 민족개량주의’ 사이 - 『흙』
6. 결론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부르주아 반동’에서 ‘부르주아 계몽’이라는 표상으로 변화된 이광수 문학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평가에 기반하여 이광수의 장편소설 4권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사적 인식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광수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사의 평가 변화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를 강조하는 북한 문학의 지배담론이 지닌 문학적 경직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에 해당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이광수 문학에 대한 평가는 배제의 대상에서 복권의 대상으로 변화한다. 해방과 분단 이래로 ‘부르주아 반동작가’로 명명되던 작가에 대한 비난이 ‘부르주아 계몽작가’로 변화되면서 객관적 공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2070628).

** 경희대학교

본고는 이광수 문학 작품에 대한 북한의 문학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미학적 특성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를 규명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무정』, 『개척자』, 『혁명가의 안해』, 『흙』 등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북한에서의 문학사적 시각의 구체성을 점검하고 남한에서의 미학적 평가를 함께 거론함으로써 남북한 문학의 이광수 문학 작품에 대한 미시적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었다. 이 작업은 동일 텍스트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적 인식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한반도 평화체제 속에서 남북한 문학의 텍스트 연구방법과 관점을 미리 의미화하는 사전 정지작업에 해당한다. ‘주체사실주의’라는 특유의 리얼리즘적 기율에 준하는 북한 문학사의 비판적 평가와 함께 문학사회학적 특성과 대중성, 문체와 미학성에 이르는 다양한 평가 준거를 활용하는 남한 연구자들의 시각을 함께 포괄할 때 이광수 문학에 대한 입체적 해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4권의 장편소설에 대한 북한문학의 입장은 남한문학과의 접점을 마련하면서도 여전히 시각과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남과 북의 70년 넘은 분단체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개척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혁명가의 안해』와 『흙』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북한문학의 인식이 남한문학에서의 다층적 평가와 사뭇 다른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정』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 차이는 많은 부분 좁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근대문학의 전통을 계급문학으로 한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학적 외연의 축소가 문학적 전통의 왜소화를 가져왔다는 북쪽 내부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점진적이거나 문학적 전통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한의 문학사가 변화 기술되고 있는 셈이다.

주제어: 이광수, 이광수의 문학, 남북한 문학, 남북한의 문학사적 인식, 무정, 개척자, 혁명가의 안해, 흙

1. 서론

이 글은 ‘부르주아 반동’에서 ‘부르주아 계몽’이라는 표상으로 변화된 이광수 문학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평가에 기반하여 이광수의 장편소설 4권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사적 인식의 차이에 대한 비교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이광수 문학에 대한 북한 문학(사)의 평가 변화는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와 주체사실주의를 강조하는 북한문학의 지배담론이 지닌 문학적 경직성과 유연성을 보여주는 바로미터에 해당한다. 1986년(『조선 근대 및 해방전 소설사연구』)과 1988년(『조선문학개관』), 1992년(『주체문학론』)을 중심으로 이광수 문학에 대한 평가는 배제의 대상에서 복권의 대상으로 변화한다. 해방과 분단 이래로 ‘부르주아 반동작가’로 명명되던 작가에 대한 비난은 ‘부르주아 계몽작가’로 변화되면서 객관적 공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1970년대 이래로 이 시기에 이르는 북한문예의 이론적 지도자가 김정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1980년대 중반 ‘우리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 이래로 김정일이 『주체문학론』에서 지시한 문학사적 전통 복원이라는 문학적 외연 확장 작업의 일환으로 이광수 문학에 대한 문학사적 공적을 복원하는 비판적 평가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다수 연구자들의 시각에 해당한다.¹⁾

춘원에 대한 북한문학사에서의 인식 변화 시점은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980년대 후반을 주목한다.²⁾ 1986년과 1988년에 『조선 근대 및 해방전 소설사연구』

- 1) 가장 최근의 학위논문 중 이예찬의 경우는 황정현의 논의의 연장선에서 1980년대 이후 ‘(우리)민족제일주의’를 주창한 북한 사회의 사상적 변화가 이러한 변화를 이끌었다고 분석한다(이예찬, 「북한에서 춘원의 위상은 왜 변화하였나?-1956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2) 김영민, 「남·북한에서의 이광수 문학 연구사 정리와 검토」, 『동방학지』 83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157-192면; 서동수, 「북한문학사 기술의 정치성 연구: 혁명적 문예전통의 변모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26집, 겨레어문학회, 2001. 215-246면;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 서신’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407-436면; 오태호, 「북한문학사의 근대소설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 양상 고찰-『조선문학사』 7(2000)의 1910-1926년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399-423면; 황정현, 「북한문학사

와 『조선문학개관』이 출간되었으며, 이때 이래로 춘원에 대한 기존 평가가 전면적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즉 기존의 문학사에서는 ‘반동적부르조이문학’으로 평가절하되던 춘원의 문학이 『조선문학개관』 이후 ‘부르조이계몽문학’으로 새로 분류되어 평가되는 것이다. ‘반동’이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면, ‘계몽’은 문학적 수사에 가깝다. 이 문학적 수사가 1980년대 중반 이래로 30여 년에 이르는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유연한 변화를 선도한다.

이광수에 대한 북한문학에서의 평가는 2010년대에 이르러 『조선근대소설사』에서 더욱 입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기존과는 다르게 이광수의 텍스트를 인용하면서 “리광수의 말그대로 장편소설 『무정』과 『개척자』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소설>로서 평론 「현상소설고선여언」에서 밝힌 <신사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그의 말에 따르면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라는 두 단어로 요약”되며, 다른 말로 “부르조이계몽사상이라고 특정화”(111~112면)할 수 있다고 거론하는 대목은 북한문학의 유연한 변화를 보여준다.

1910년대로부터 1940년대 전반기에 이르는 30여 년간에 걸치는 리광수의 창작활동로정은 근대문학의 형성시기 민족주의와 자유, 평등의 사상리념을 가지고 계몽적성격의 진보적인 작품들을 창작발표하며 당시의 문학사에 일정한 자욱을 남겼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리익과 근로인민대중의 지향을 외면하고 배반하며 외래제국주의침략정책과 착취계급의 요구를 대변하고 선전하는 데로 나간다면 반민족적이며 반인민적인 반동어용문인의 수치스러운 길을 걷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³⁾

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사 『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 연구』 제6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75~403면; 오태호,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49~174면; 이선경,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연구-조선사회과학술집(2009-)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101~146면 등 참조.

3) 한중모·심경섭, 『조선근대소설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100면.

인용문의 인식은 이광수의 문학적 공과를 압축하면서 평가의 공정성 복원을 보여준다. 즉 기존과는 다르게 근대문학 초기 ‘민족주의, 자유, 평등, 계몽, 진보’ 등의 작가적 의도를 충실히 언급하면서 문학적 기여를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후 결과적으로 민족의 이익과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배반을 수행하면서 착취계급의 대변자로 활동한 ‘반민족적이고 반인민적인 반동 어용문인’이라는 비판적 명명 역시 함께 지적된다. ‘반동적 부르주아’이자 ‘친일 반민족 작가’라는 비난과 비판 일색에서 문학적 공과를 함께 기록하는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이광수 문학 작품에 대한 북한의 문학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미학적 특성에 대한 남북한의 인식 차이를 규명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이미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인식 변화 양상을 고찰한 바 있다. 당시 분량상의 사정으로 다루지 못했던 『무정』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부분적으로 보완하고자 한다. 더불어 북한문학사에서 상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개척자』와 함께 문학사적 부연 설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광수의 1930년대 작품인 『혁명가의 안해』와 『흙』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네 권의 장편소설은 북한문학사의 인식의 낙차와 진폭을 보여주는 이광수의 대표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무정』, 『개척자』, 『혁명가의 안해』, 『흙』 등의 텍스트가 남한과 다른 북한문학의 당문학적 입장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텍스트로 문학사에서 호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해 이광수의 장편소설을 매개로 북한에서의 문학사적 시각의 구체성을 점검하고 남한에서의 미학적 평가를 함께 거론함으로써 남북한 문학의 이광수 문학 작품에 대한 미시적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동일 텍스트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적 인식 차이를 규명함으로써 향후 도래할 한반도 평화체제 속에서 남북한 문학의 텍스트 연구방법과 관점을 미리 의미화하는 분석에 해당한다. ‘주체사실주의’라는 특유의 리얼리즘적 기율에 준하는 북한 문학사의 비판적 평가와 함께 문학사회학적 특성과 대중성,

문체와 미학성에 이르는 다양한 평가 준거를 활용하는 남한 연구자들의 시각을 함께 포괄할 때 이광수 문학에 대한 입체적 해석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2.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와 ‘부르주아 계몽사상’ 사이-『무정』

이광수의 『무정』은 남한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장편소설로서 한국문학의 기념비적 텍스트로 평가된다. 『무정』의 문학사적 의미는 ‘한국문학 최초의 장편소설, 한글 문체의 첫 완성, 주체의 객관화(반성적 사고의 가능), 최초의 연애소설’ 등으로 주목⁴⁾될 뿐만 아니라, ‘시대적 진취성(상승계층의 세계관), 사제관계의 견고성, 누이 콤플렉스의 발현(=정결성), 한(恨)의 표정, 작가의 자전적 요소’ 등이 주목⁵⁾되면서, ‘계몽적 담론의 서사적 구현 성공, 자아의 각성과 개인의 발견, 사랑의 문제, 교시적 기능’ 등이 신소설의 한계를 극복한 근대소설로서의 성과⁶⁾로 거론된다.

이러한 남한의 대표적인 문학사적 인식과는 다르게 이광수 문학은 북한에서 비판적 평가의 대상이 된다. 북한에서의 공식적인 최초의 문학사인 안함광의 『조선문학사』(1956)에서는 춘원의 『무정』을 “부르주아 소설계에 있어서의 대표작”으로 호명하면서 “인민의 사상을 철저히 반대”하는 “부르주아 소설의 반동성”을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한다. 즉 “첫째로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투항 사상을 선전하였으며 둘째로는 유심론적, 관념론적 세계관의 확성기적 역할을 놓고 있다. 셋째로는 세계주의의 사상을 선전하고 있는”⁷⁾ 작품이라면서 ‘반리얼리즘 텍스트’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것이다.

4) 김현, 「이광수와 주요한의 문학사적 위치」,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115-128면.

5)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숲, 1999, 566-619면.

6)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2, 199-205면.

7)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한국문화사, 1999), 49면.

하지만 2000년에 발표된 『조선문학사』 7에서는 『무정』에 대한 평가가 달라진다.⁸⁾

그는 장편소설 『개척자』를 쓰기 전에 장편소설 『무정』(1917년)을 내놓았는데 이 작품에서는 청년들의 사랑과 런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신문명에 대한 청년들의 이상과 시대적기분을 보여주었다. / 작품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아로 된 형식이 부자집 가정교사로 되는 과정과 일제 감옥에 끌려간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하여 몸을 팔아 기생이 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영채의 비극적인 처지, 영채의 순결한 정조를 무참하게 짓밟은 경성학교 백학감의 추악한 행위 등을 통하여 황금과 권력이 판을 치는 착취사회의 사회악에 대하여 폭로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기본은 신문명에 대한 지향에 초점을 맞추었던만큼 현실비판정신은 미미하며 종교적 <박애> 사상과 부르주아적 <미덕>으로 당대현실을 미화한 흔적들을 남기었다.⁹⁾

인용문에서처럼 “청년들의 사랑과 런정”과 함께 “신문명에 대한 청년들의 이상과 시대적 기분”을 보여주는 텍스트 내적 평가를 전제로 긍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바뀌는 것이다. 특히 영채의 비극적 서사를 거론하며 ‘황금과 권력’을 추구하는 ‘착취사회의 사회악에 대한 폭로’와 함께 ‘신문명에 대한 지향’이라는 문명개화적 작가의식을 지적하고 있는 대목은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흔적을 보여준다. 다만 ‘종교적 박애사상’과 ‘부르주아적 미덕’으로 당대 현실을 미화했다는 비판은 당파성과 계급성을 강조하는 ‘주체사실주의’라는 리얼리즘적 기율의 ‘도그마’를 강조한 평가에 해당한다.

8) 1956년 이후 2000년 이전의 『무정』에 대한 인식 변화가 1980년대 중반을 중심으로 달라진다는 구체적 내용은 오테호의 다음 논문 참조(오테호,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49~174면).

9) 류만·리동수,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129~130면.

뿐만 아니라 2013년에 발표된 『조선근대소설사』에서는 이광수 문학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저자의 시각을 덧붙인다. 즉 춘원의 글을 직접 거론하면서 저자의 의도를 문학 작품의 평가에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리광수는 (중략) 『동광』 1931년 4월호에 게재한 「나의 작가적 태도」라는 글에서 (중략) 자기가 장편소설 『무정』, 『개척자』를 비롯한 여러 작품들을 쓴 것은 당시 조선의 현실을 그려내어 독자들에게 훈계를 주어 분발하게 하려는 것이었다고 하였다.¹⁰⁾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한중모와 심경섭의 2010년대 인식은 ‘민족주의와 계몽주의’를 설파하는 대중 작가로서 이광수의 문학사적 지위를 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재확인하고 있다. 즉 기준에 ‘부르주아 계급의 반동성’을 비난하며 명명한 ‘부르주아 반동작가’라는 평가 절하의 방식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평가의 외연을 넓힌 진일보한 시각의 반영으로 판단된다.¹¹⁾

이렇듯 이광수의 『무정』은 1956년의 북한문학사에서 ‘일제에 대한 투항, 유심론작관념론적 세계관의 한계’ 등의 ‘반리얼리즘적 텍스트’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았지만, 1980년대 이후 청년들의 신세대적 이상과 신문명의 시대성을 보여주는 ‘부르주아 계몽문학의 텍스트’로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라는 신사상을 표현한 작가의 대표적 작품으로 평가가 변화된다. 이렇게 본다면 ‘부르주아’라는 표현만 레토릭으로 강조될 뿐 『무정』에 대한 남북한의 문학사적 평가는 2010년대에 이르러 ‘민족주의와 계몽주의, 자유연애 사상’ 등의 측면에서 유사한 평가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10) 한중모·심경섭, 『조선근대소설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88면.

11) 이선경, 앞의 글 참조

3. 관념주의적 시각의 한계와 ‘사회악에 대한 불만’ 사이-『개척자』

북한의 문학사에서는 남한의 문학사에서와 다르게 김정일의 『주체문학론』 이래로 『무정』보다 『개척자』를 중시하는 입장이 강조된다. 김일성이 중학교 시절 청년운동을 하면서 『개척자』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작품으로 읽었기 때문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하지만 남한에서는 비판적 평가 일색이다. 왜냐하면 문예미학적으로 보았을 때 『개척자』가 “추상적 현실인식과 근거 없는 비관주의”¹²⁾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남한에서는 『개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편이다. 그 원인은 아래와 같은 선행 연구자의 비판적 평가가 한몫을 담당한다.

『개척자』는 『무정』과 달리 관념적인 조작에 의해 씌어진 것이어서, 문체도 국한문혼용체이며 자전적 목진한 진실이 담겨 있지 않았으며, 따라서 신사상의 주입이 겉으로 뻗히 드러난 졸작이었다.¹³⁾

김윤식은 인용문에서 『개척자』가 『무정』과 다르게 구체적인 리얼리티의 측면에서 “관념적인 조작”으로 추상화된 작품이며, 언문일치체를 보여주는 『무정』에 비해 국한문혼용체인데다가 자전적 진실도 사라진 채 “신사상의 주입”만을 드러낸 ‘졸작’이라고 평가한다. 이렇듯 국한문혼용체를 사용한 점 등과 함께 주요 인물인 과학자 성재의 성격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은 『개척자』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서사적 근거에 해당한다. 남한에서 『개척자』는 “과학 입국이라는 계몽적인 요소와 애정 갈등이라는 통속적인 요소를 결합”¹⁴⁾시킨 작품일 뿐, 『무정』에 비해 전반적으로 이야기의 완결성이 떨어지는 작품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다.

12)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206면.

13) 김윤식, 앞의 책, 613면.

14)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00, 205~206면.

남한에서의 인색한 평가와는 다르게 김정일의 『주체문학론』에서는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을 전제로 『무정』보다 『개척자』가 더 중요하게 거론된다.

장편소설 『개척자』를 비롯한 리광수의 초기 소설들은 1910년대의 우리나라 소설 문학의 대표작으로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이 일정하게 반영되어있다. 언제인가 수령님께서는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청년운동을 할 때 리광수의 소설 『개척자』를 읽어보았는데 그 작품에는 당대 사회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어있었다고 하시면서 리광수는 그후에 『혁명가의 아내』라는 소설에서 자기가 변절하였다는 것을 드러내놓았다고 교시하시였다. 리광수가 초기에 쓴 장편소설이 당대 사회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고 1910년대 우리나라 소설문학의 대표작으로 되고있는것만큼 그의 초기작품의 긍정적 측면을 문학사에서 취급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¹⁵⁾

인용문은 김정일이 이광수의 문학에 대해 북한문학사의 지적 유산이자 전통에 해당할 수 있음을 거론한 대목이다. 즉 『무정』(1917) 이후 『매일신보』에 연재되었던 『개척자』(1918)를 위시한 1910년대의 이광수의 초기 소설들은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일정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특히 김일성이 길림의 육문중학교에서 청년운동을 하면서 『개척자』를 읽었다는 점이 언급되며, “당대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 표현이 작품의 긍정성으로 제시된다.

1920년대 이후 『민족개조론』을 설파하던 이광수가 『혁명가의 아내』(1931) 등에서 반동성과 ‘자신의 변절’을 드러냈기 때문에 중기 이후는 아니더라도 초기 작품의 긍정성은 문학사에서 취급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이 개진되는 것이다. 『조선문학사(19세기말~1925)』(1980)에서 이광수에 대해 “떠벌이던놈”이라고

15)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83면.

명기하던 원색적 비난 표현은 1990년대에 들어와 사라진다. 그것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교시와 말씀’을 의식하면서도 자신의 문학사적 인식론을 펼친 대목으로 해석된다. 즉 김정일이 김일성의 시대와 다르게 문학적 외연의 확장과 긍정적인 평가를 주문함으로써 이광수의 문학적 유산과 전통을 새롭게 해석할 여지를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주지하다시피 2000년에 발표된 『조선문학사』에서는 『무정』보다 『개척자』를 춘원의 초기 대표작으로 언급한다. 『무정』의 약점을 적지 않게 극복한 작품이라는 것이다.

부르조아계몽주의사상에서 경향을 같이하고있지만 『무정』보다 뒤에 창작된 장편소설 『개척자』(1918년)는 『무정』의 약점을 적지않게 극복하고 넓은 봉건도덕에 저항하는 신시대의 룬리, 개성의 자유와 해방에 관한 사상을 표현하면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일정하게 반영하였다.

작품에서는 사회의 유익한 일을 위해 개인을 희생하고 과학탐구의 길에 청춘의 정열과 지혜를 바쳐나선 청년과학자 성재와 넓은 봉건적질서와 구도덕을 반대하고 개성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해나선 성순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이 창조되었다.¹⁶⁾

인용문에서 드러나듯 『개척자』는 『무정』의 약점을 극복한 텍스트로서 신세대의 윤리와 개성적 자유와 해방 사상을 표현한 작품으로 『무정』보다 고평된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약점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은 없이, 『무정』과 유사한 “당대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의 일정한 반영만을 강조한다. 그리고는 곧바로 공익을 위해 헌신하는 청년과학자 성재를 한 축으로 하고, 개성의 자유와 해방을 지향하는 성순을 다른 한 축으로 신세대의 청년담론을 주목한 작품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6) 류만·리동수,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130면.

하지만 남한에서는 ‘계몽소설’이라는 이광수의 창작의도에 따르면 『개척자』의 주인공이 성재나 성순이 아니라 민이었으며, ‘개척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과학의 영역보다는 윤리와 관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며, 서사 구조의 핵심이 성재를 중심으로 한 과학소설이 아니라 민을 중심으로 한 연애소설이라고 분석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신세대의 도전이 구시대와 구세대의 권력에 패퇴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개척자』는 ‘철저히 관념적인 이광수의 계몽주의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는 작품¹⁷⁾이라고 평가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개척자』의 서사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개척자』의 서사를 요약해보면, 화학자인 주인공 김성재가 7년 동안 실패를 거듭한 화학 실험으로 인해 부모님의 재산을 거의 다 탕진하게 된다. 성재가 함가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차압이 들어오고 아버지가 충격으로 사망하게 된다. 장례 이후 집을 팔아 빚을 갚은 뒤 작은 집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때 성재의 친구인 화가 민이 성순에 대한 흠모의 정을 표현한다. 성순은 아내가 있는 민과의 사랑에 빠지게 되고, 변씨와의 정혼을 앞둔 어느 날, 민씨와의 정신적 사랑을 위해 극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결국 성순이 죽고 장례를 치른 뒤 매장하고 돌아와, 성순의 정신적 남편이 된 민이 제문을 짓는 것으로 작품은 끝난다.

작품의 개요만 살펴봐도, 『개척자』는 주인공을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작품에 대한 평가가 사뭇 달라질 수 있는 작품이다.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성재와 성순 남매의 혈육 간의 신뢰와 애정을 중심으로 교활하고 잔혹한 함가네의 ‘사회악’적 횡포를 그려내고 있다면, 뒷부분에서는 성순과 민의 정신적 사랑을 중심으로 물질적 재부를 소유한 변씨가 개입하는 전형적인 삼각관계를 그린 연애소설인 것이다.

『주체문학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개척자』에서 ‘사회악에 대한 불만’이 표현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활하고 이기적이며 물욕에 눈이 어두운 함가네의

17) 김영민, 『『개척자』 다시 읽기, 『사이』 18,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83~115면.

성재네에 대한 갖은 횡포를 형상화한 부분에 있다. 특히 함가의 생일날 ‘미친 전경이’가, 『춘향전』에서 변사또의 생일날 이몽룡이 지어 불렀던 7언절구의 풍자시(金樽美酒千人血 / 玉盤佳肴萬姓膏 / 熾淚落時民淚落 / 歌聲高處怨聲高)를 읊조리는 대목은, 탐욕스런 거상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드러낸 부분이다. 결국 『주체문학론』의 ‘사회악에 대한 불만 표현’이라는 지적은 고전문학의 풍자성을 작품에 그대로 도입한 것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린 결과라고 볼 수 있다.

①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은 미술 없는 조선 사람에게 미술을 주려고 하는 것이야요. 즉 제가 이 도토리가 되어서 움이 나서 자라서, 자꾸자꾸 자라서, 큰 나무가 되어서 이러한 도토리를 많이 맺잔 말아야요. 알아듣기 쉽게 말하면, 지금 그림 그리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지마는 장차는 수백 명 수십 명 있게 하자는 말이지요. 알아들으십니까. 선생도 그렇지요. 자기 혼자서 아무리 큰 발명을 한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 귀합니까. 선생 같은 화학자가 수백인 수천인 나게 해야 비로소 뜻이 있는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¹⁸⁾

② “저는 한 번 마음을 어떤 남자에게 허하면 벌써 그 여자는 처녀가 아니라 해요. 육으로 허하는 것은 다만 그 종속물에 지나지 못한다고 해요. 마음으로 허한 뒤에는 이미 육으로 허한 것이 아니야요? 저는 벌써 처녀가 아니올씨다. 저는 벌써 시집간 여자예요.”(429면)

③ 성아! 모든 희망과 기쁨 / 내게 있는 온갖 말아 / 네 관에 넣고 오직 하나 / 가슴에 남은 것, 이 슬픔! // 아아! 귀한 슬픔! 오직 / 이것이 나의 재산이다! / 세상의 끝까지 품에다 / 품을 기념이 이것! 오직! // 사람이 죽을가. 죽으러 / 생명이 났을가. 생명은 / 죽는다 하여도 사랑은 / 사는 것 아닐가 오히려!(470면)

인용문 ①은 성순이가 오빠 친구인 화가 민이 던지는 교육의 중요성과 함께 계몽주의적 시각이 담긴 대사에 감동받는 부분이고, 인용문 ②는 변씨와의 결

18) 이광수, 『이광수 전집 제1권-무정/개척자/초기의 문장』, 삼중당, 1964, 347면.

혼을 진행하던 성재와 어머니에게 성순이가 인습(부모의 권력/사회의 인습)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뒤, 민을 찾아가 자신이 이미 민과 정신적 관계를 맺은 여성임을 피력하는 부분이고, 인용문 ③은 성순이가 자살한 뒤, 민이 성순과의 사별의 아픔을 노래한 제문이다. ‘생명은 죽어도 사랑은 남는다’라는 진술은 이 작품이 작위적이고 관념적인 통속적 소설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개척자』는 작품의 앞부분에서는 성재와 더불어 민이라는 청년이 선각자적 지식인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형상화되면서 함가네의 패악과 맞서기도 하지만, 작품의 뒷부분에서는 성순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연애 소설인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결국 『무정』에서 이야기된 자유 연애 사상과 계몽주의적 관점을 청년과학자와 화가라는 청년들의 이야기로 바꾸어 다시 쓴 대중연애소설인 셈이다.

결국 이광수의 『개척자』는 ‘사회악에 대한 불만’을 부분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을 뿐,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무정』의 사상적 연장선 상에서 쓰여진 계몽주의적 연애소설에 불과한 작품이다. 북한 문학사에서 평가하듯 부분적으로 ‘사회악에 대한 불만’이 표출되고 있지만, 문예미학적 측면에서 볼 때 근대장편소설의 효시인 『무정』에서 제시한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계몽주의’ 등의 신 사상을 국한문혼용체를 활용하여 관념적으로 추인하고 연애소설의 외피를 통해 대중화한 텍스트인 셈이다.

4. 풍자적 반공주의와 ‘혁명가에 대한 비방’ 사이-『혁명가의 안해』

남한의 문학사에서 『혁명가의 안해』는 『재생』 이후 한국의 중추적 사회 계층의 변모 양상과 더불어 “그들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현상”을 그린 현대소설다운 작품이지만, 작가의 애착이 결여된 탓에 실패를 전제로 쓰여진 작품¹⁹⁾으

19) 김운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개정증보)』 2, 서울, 1999, 174-175면, 460면.

로 “1920년대를 휩쓴 계급주의 사상에 대한 문학적 비판”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북한문학사에서 『혁명가의 안해』는 ‘혁명가에 대한 원색적 비방’ 속에 1930년대 공산주의자의 위선적 모습을 중상모독하려는 악의적 의도로 창작된 ‘부르주아 반동작가’의 전형적인 반공소설로 평가된다. 197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는 춘원의 작품 활동이 원색적으로 비난을 받는다. 이광수가 “자기의 반동적인 소설 『혁명가의 안해』(1931), 『흙』(1932), 『사랑』, 『단종애사』(1929) 등 작품들을 통하여 위선적 가면과 <리상>의 설교로써 일제에 대한 투항과 민족에 대한 멸시, 친일친미사상, 계급의식을 마비시키기위한 편애지상주의, 로동계급과 혁명가들에 대한 악랄한 비방 중상, 반동적인 복고주의, 세계주의, 민족허무주의사상을 퍼뜨리려고 책동”²⁰⁾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2019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북한문학사의 고정된 시각과 관점이다.

1980년대 『조선문학사』에서의 평가도 대동소이하다. “부르주아반동작가 리광수는 『단종애사』(1929), 『사랑』, 『혁명가의 안해』(1931), 『흙』(1932) 등 색정적이며 허무주의적인 반동소설을 통하여 친일적인 민족개량주의와 굴종적인 패배주의사상을 전파하는데 미쳐 날뛰었”으며, “소설에 나오는 공산이라는 <혁명가>와 그의 안해 정희는 모두가 참된 혁명가를 모독하기 위하여 작가가 외곡형상한 인간쓰레기들”²¹⁾이라고 비난한다. ‘혁명가에 대한 비방과 중상’에서 나아가 “색정적이며 허무주의적인 반동 소설”로 ‘친일 개량주의와 굴종의 패배주의’를 전파하면서, 주인공들이 “인간쓰레기들”로 왜곡되어 혐오적 군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1980년대까지 여러 텍스트들을 함께 묶어 비난을 퍼붓던 방식에서 벗어나 1990년대 『조선문학사』에서는 이기영의 평론 「『혁명가의 안해』와 리광수」(1933년)을 거론하면서 『혁명가의 안해』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거론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시였다.

20)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강좌, 『조선문학사』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324~325면.

21) 김하명·류만·최탁호·김영필, 『조선문학사』(1926~194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66면.

“소설 『혁명가의 안해』는 한 공산주의자가 병치료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안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해주러 다니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치정관계를 맺는 추잡한 생활을 그린 작품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되어있었다.” (중략)

평론 『『혁명가의 안해』와 리광수』에서는 소설의 반동적본질을 발가놓으면서 그것은 “작가가 의식적으로 맑스주의자를 사이비혁명가로 만들려고 고심날조한 용렬한 작품”이라고 단죄하면서 이 작품은 독자들로 하여금 “공산주의자와 리광수에게 하려는 음험한 리간책을 쓰려”한테 목적이 있다고 폭로하였다.²²⁾

인용문에서처럼 『혁명가의 안해』는 “공산주의자들을 모독하고 공산주의운동을 헐뜯는 사상”으로 일관된 악의적인 텍스트로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이광수의 반동적 본질을 폭로하는 작품이며, 마르크스주의자를 ‘사이비혁명가’로 날조하고 독자를 공산주의와 멀어지게 만들려는 이간책이 작품의 불순한 의도이자 목적임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대 『조선근대소설사』에서도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병에 걸려 앓는 사람의 안해가 남편의 병치료를 하는 의학전문학교 학생과 치정관계를 가지는 추잡한 이야기를 늘어놓아 사회주의자의 가정을 악랄하게 비방중상²³⁾한 작품으로 비판된다. 공산주의와 혁명을 불운시하면서 불륜의 추잡한 치정 관계를 늘어놓아 사회주의자의 가정을 비방하고 중상한 악의적 텍스트로 평가절하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춘원은 어떤 의도에서 이러한 문제적 텍스트를 생산한 것인가? 『혁명가의 안해』에 대한 춘원의 이례적인 「서문」은 작품에 대한 세간의 비판적 시선을 확인하게 한다.

『혁명가의 아내』는 『군상』 중에 한편이다. 『군상』은 그 글자와 같이 이것저

22) 류만,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17면.

23) 한중모·심경섭, 『조선근대소설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99면.

것 여럿을 그린다든 뜻이니, 이리해서 내가 본 1930년대의 조선의 횡단면을 그려 보자는 생각이다.

『혁명가의 아내』는 친구들 간에 모델을 문제로 하는 이들도 있는 듯하나 나는 언제든지 어느 실재한 개인을 모델로 하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으니 이 『혁명가의 아내』도 순전한 내 상상의 산물이요, 어떤 실재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은 아니다.²⁴⁾

굳이 “상상의 산물이요, 어떤 실재한 인물을 모델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인용문의 구절은 실상 “내가 본 1930년대의 조선의 횡단면을 그려보자는 생각”과 모순된다. 일제 강점기 조선의 1930년대 실상을 그려보려는 의도로 창작했으면서도 그것을 허구적 상상력의 세계라고 뒤이어 진술한다는 것은, 작품 이면에 깔린 이광수의 ‘반공’ 의도를 짐작하게 한다.

『혁명가의 아내』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산이라는 혁명가가 폐병으로 드러누운 지 1년이 넘는데, 전처가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간 뒤, 방정희라는 육감적인 여인과 새 가정을 이루게 된다. 공산이 정희에게 혁명적 기질을 체화하게 만들지만, 정희는 남성의 육체에만 집착할 뿐, 이분법적 세계 인식을 보여주는 ‘허울뿐인 혁명가’이다. 정희는 자신의 육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의전학생인 권오성을 유혹하여 관계를 유지하던 중 공산이 죽게 되자 장례를 치른다. 이후 정희는 오성과 여행을 가서 임신 사실을 알리지만, 오성의 폭력으로 유산을 하게 된다. 임종 이후 정희는 이론과 실천을 겸비했던 ‘혁명가의 아내’라는 평판을 받으며 공산의 곁에 묻히면서 작품이 마무리된다.

이 작품은 결국 혁명이 공산의 위선적 태도와 더불어, ‘절대 평등’만을 외치며 전도된 가치관으로 남성의 육체에만 탐닉하는 ‘혁명가의 아내’ 정희의 이중성을 신랄하게 비꼬기 위해 만든 풍자소설에 해당한다. 일제 강점기에 계급주의 운동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되던 시점에 쓰여진 이 소설은 계급주의와 공산

24) 이광수, 「서문」,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1979.

주의에 대한 거부감 속에 반공적 시각을 체화한 ‘민족주의 작가’인 이광수의 악의적인 의도가 드러난 작품이다. 따라서 계급주의 진영의 이기영은 「변절자의 아내」(『신계단』, 1933.5)라는 패러디 작품을 통해 이광수와 『혁명가의 아내』에 대한 비판을 문학적으로 수행한다.

① 혁명가-그의 이름은 공산(孔産)이라고 부른다. 무론 이것은 가명이다. 그의 본명이 무엇이나고 물어도 나는 절대로 대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야기꾼이 지키는 유일한 비밀이요 또 신의이다. 이야기꾼에게는 이 비밀 밖에는 다른 비밀이 없고, 이 덕의 밖에는 다른 덕의가 없다. 그는 누구의 이야기든지 아무리 당자가 듣기 싫은 이야기라도 하고만 싶으면 다 한다. 오직 하기가 싫어야 고만 둔다. 하고 싶은 이야기는 꾸며대서라도 하고, 하기가 싫어만지면 목을 베더라도 아니하는 것이 이야기꾼의 심술이다. 나도 이야기꾼으로 나선 바에는 이 특색들을 아니 가질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혁명가의 본명을 결코 말하지 아니하려고 한다. 그의 아내나 친구들의 이름도 다 이야기꾼의 가작이다. 이것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독자들에게 채삼 명심하시기를 바라는 예비지식이다.²⁵⁾

② 세상에서는 지금 그의 일흔을 민족(民族)이라고 부른다. 그를 왜 ‘민족’이라고 부르는지 그것은 나도 잘 모른다. 나는 신문 기자나 정담이 아닌지라 남의 비밀을 잘 알지도 못하거니와,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싶어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이 유명한 ‘민족’에게 대해서는 다만 그의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도 훌륭히 이야기거리가 몇 다스라도 될 줄 안다. 그것은 우선 ‘민족’이라 하면 아동주술까지라도 모를 이가 없으리만큼 그는 너무도 유명짜하기 때문이다.²⁶⁾

인용문 ①은 「혁명가의 아내」의 서두이고, 인용문 ②는 이광수의 작품을 패러디한 이기영의 「변절자의 아내」의 서두이다. 민족주의 문학 진영에서 이광수가 사회주의 혁명 세력에 대한 인신공격적 소설을 창작했다면, 그에 대한 대

25) 이광수, 『혁명가의 아내』, 우신사, 1979, 9면.

26) 이기영, 「변절자의 아내」, 『신계단』, 1933.5, 102면.

결 의식 속에서 이기영의 작품이 쓰여진 셈이다. ‘공산이라는 가명’과 “이야기꾼의 가작”을 강조하는 이광수의 『혁명가의 이해』나 ‘아동주술까지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개인’ ‘민족’을 거론하는 이기영의 「변절자의 아내」는 두 작품이 1930년대 일제 강점기의 암흑시대를 풍자적으로 전유하는 ‘민족주의 진영’과 ‘계급주의 진영’의 대표적인 두 방편임을 보여준다.

『혁명가의 이해』에서 서로의 육체만을 끝없이 탐닉하던 공산(공진호)과 정희는 공산의 폐병으로 인해 가정의 과국을 맞이하게 되지만, 더욱 회화적으로 형상화되는 인물은 정희이다. 정희는 “이론으로 무산계급의 여자를 동정하고 존경할 것을 주장하나, 실천으로 동성인 어멈 계급에 대하여 잔인하다고 할 만한 멸시와 학대”를 퍼붓는 이중적 여성이다. 뿐만 아니라 백일도 안 된 어린 딸에게 젖을 먹이는 것이 봉건적이고 부르주아적 유물이라고 거부하여 아이를 죽게 만들었으면서도, 아이의 죽음을 애도하는 공산을 비혁명가적이라고 비웃는 무지몽매한 여성으로 회화화된다. 기존의 가치관에 대해서는 무조건 봉건적이고 부르주아적이라는 오명을 씌운 채, 가치의 전도만을 일삼는 정희의 캐릭터는 ‘공산주의’와 ‘혁명’을 향한 작가의 시선이 ‘풍자적 비판’을 넘어 ‘원색적인 비난’에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① “흥 정조, 의리, 남편을 섬김. 흥 봉건사상, 노예 도덕…… 흥.” 하고 정희는 열녀 타이프인 그 어머니 이미지를 침을 뱉고 밧길로 차 버린다. “그런 모든 인습적 우상에서 - 노예의 질곡에서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 혁명이다!” 하고 정희는 혁명가다운 용기를 발하여 별떡 일어난다. 일어난 것은 건넌방으로 가자는 뜻이다. 지금까지 생각한 모든 것이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권과 같이 자도 옳다는 이론을 성립시키려는 것에 불과하다. (32면)

② “정조 자기 희생. 모두 부르조아 이데올로기야, 부르조아!” 이렇게 정희는 속으로 외친다. 무엇이든지 봉건적이나 부르조아라고 정죄만 하면 다 결정이 되어 버리는 듯하였다. (중략) 정희는 어떤 것이 진실로 봉건적이요, 부르조아 근성인지 분명히는 모른다. 그러나 한 가지 큰 원리, 큰 공식을 안다. 그것은 가치

의 전도(顛倒)라는 것이다. 무엇이든지 재래에 옳다고 여겨 온 것은 다 봉건적이요, ‘부르조아 근성’이라 하는 것이다. 재래에 옳지 않다고 하던 것은 대개 옳은 것 - 변증적이요, 민중적이라 하는 것이다. (33면)

인용문 ①은 정희가 ‘정조’를 인습적 관점으로 치부하며 오성과의 관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혁명가다운 용기’를 발휘하는 대목이며, 인용문 ②는 기존의 가치관은 무조건 ‘봉건적/부르주아적’이라는 미명 하에 “가치의 전도”만을 추구하는 궤변론자 정희의 성격을 진술하는 대목이다. ‘해방’과 ‘혁명’과 ‘계급’이라는 담론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언어도단을 일삼는 정희의 모습은 여성차별주의자인 공산, 유약한 의전학생 오성과 함께 작가에게 풍자적 비판의 대상으로 그려질 뿐이다.

이렇게 보면 이 작품은 ‘변절자 이광수’의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계급해방으로서의 혁명과 공산주의적 전망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광수는 『무정』 이래로 자유 연애와 계몽주의 사상을 표현하는 작품을 지속적으로 형상화해 왔으며, 도산 안창호의 노선을 따르는 교육 준비론 사상에 바탕한 민족주의 계열에 서서 계급주의 사상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이봉수’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만든 작품이지만, 풍자적이고 냉소적인 화자의 어조나 공산(孔産)이라는 희화화된 명명법 등에서 확인할 수 있듯 혁명가 집단을 우회적으로 비난하기 위해 창작한 세태풍자소설에 해당한다. 공산이라는 인물과 함께 ‘정희’라는 악처를 창조하여 ‘천사와 마녀’의 이분법적 이미지²⁷⁾를 활용한 『혁명가의 안해』는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보면 조선 민족의 독립이 요원해지고 계급 해방을 위한 혁명이 좌절된 시대에 혁명가의 가정을 희화화한 풍자소설인 셈이다.

27) 이상진, 「불안한 주체의 시선과 글쓰기: 1930년대 남성작가의 아내표제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37,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29~169면.

5. 민족주의적 계몽의식과 ‘친일적 민족개량주의’ 사이-『흙』

남한 문학사에서 『흙』은 “홍사단의 동우회 이념을 소설화”한 작품으로서 “국가상실의, 아비 없는 고아의 시대였던 당대” 현실을 반영한 작품으로 평가된다.²⁸⁾ 계급문단의 농민문학과 거리를 둔 ‘계몽적인 농촌소설’로서 주인공의 성격을 이상화함으로써 농촌운동이 관념적이고 비현실적인 양상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비판된다.²⁹⁾ 뿐만 아니라 “민족개량주의와 복고주의의 경향” 속에 “민중을 우매한 대중으로 경시”하고, “일제의 지배정책에 영합하면서 각성된 민중 의식을 마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텍스트³⁰⁾로 평가절하되기도 한다.

반면에 주요한은 『무정』, 『재생』, 『흙』, 『사랑』 등 춘원의 장편소설이 지닌 두 가지 공통점으로 첫째 작품 속 연애 감정을 통해 “하나의 계몽운동, 사상 혁명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점, 둘째 “민족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는 사명감이 기조”³¹⁾로 등장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그리하여 『흙』에서도 ‘계몽적이고 설교적인 특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작품 속의 ‘한 선생과 허송’의 말을 통해 “민족주의, 봉사주의, 이타주의, 자기 희생” 등을 주창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북한문학사에서 이광수의 『흙』은 ‘친일적 민족개량주의’를 선전한 작품으로 비판된다. 즉 “허송이라는 자를 통하여 민족의 <갱생>과 <대동단결>을 부르짖으며 친일적인 민족개량주의를 선전”³²⁾하고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특히 1990년대 북한 평론에서는 이기영의 『고향』과 대비되면서 현실을 왜곡 반영한 반리얼리즘 텍스트로 평가절하된다.

28) 김윤식·정호웅,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236면.

29)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896~1945)』 1, 민음사, 2002, 520~521면.

30)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505면.

31) 주요한, 「작품해설」, 이광수, 『흙』, 우신사, 1979, 511~518면.

32) 김하명·류만·최탁호·김영필, 『조선문학사』(1926~194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366면.

『고향』은 일제통치하의 조선농촌의 현실을 비교적 진실하게 그리었다면 『흙』은 같은 현실을 두고 비진실하게 외곡하여 그리었다. 이렇게 된 근본요인은 전자는 로동계급의 세계관과 문예관에 기초해서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현실을 보고 그린데 있기때문이며 후자는 부르췌아문예관과 <민족개조론>의 친일적이며 개량주의적이며 계몽주의적인 견지에서 현실을 보고 그리였기 때문이다.³³⁾

인용문에서처럼 이기영의 『고향』이 일제 강점하의 농촌 현실에 대해 노동계급의 세계관을 반영하여 계급주의적 인식을 탁월하게 형상화하고 있는 반면에, 이광수의 『흙』은 『민족개조론』 이래로 친일적이고 개량주의적인데다가 부르주아적 세계관을 반영한 계몽주의적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현실을 왜곡하여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는 진단이다.

하지만 남한에서 『흙』은 심훈의 『상록수』와 함께 1930년대 대표적인 농촌계몽운동을 보여주는 텍스트로 언급된다. 서사 자체는 1931년 발생한 ‘만주사변’ 직후를 시공간적 배경으로 전개되면서 『동아일보』(1932.4.12~1933.7.10)에 총 291회에 걸쳐 연재된 ‘대표적 농촌계몽소설’이다. 특히 서울과 살여울의 이분법적 대립구도가 ‘문명/야만’, ‘양반/쌍놈’, ‘빛/어둠’ 등으로 형성되면서 식민주의적 위계의식이 서사의 큰 축을 이루는 작품으로, 살여울에서 농촌계몽운동을 이끄는 지도자 허승은 동경에서 고등문관 사법과 시험을 통과한 변호사로서 『무정』의 이형식처럼 입지전적 지식인의 표상에 해당한다.

작가의 말에서 “새봄에 싹트는 이땅의 흙 / 그 위에 새로 깨는 이 나라의 아들들 딸들의 / 갈고 뿌리고 김매는 땀과 슬픔과 기쁨과 소망 / 청춘의 사랑, 동족의 사랑, 동지의 사랑..... / 이것을 그려 보려 한 것”³⁴⁾을 강조하는 이광수의 『흙』은 표면적으로는 ‘서울/살여울’의 식민지 내의 대립관계를 보여주지만, 심층적으로는 ‘동경-서울-살여울-검불랑’ 등의 공간적인 차이가 지닌 점층적인

33) 방연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체의 문예관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3.2, 26면.

34) 이광수, 『흙』, 우신사, 1979, 4면.

위계망을 보여주면서, 일제의 승인을 받은 식민지 지식인 허송이 ‘제국-식민지의 공간적 위계’를 확인하고 그 간극을 줄이는 역할을 담당하는 소설로 평가된다.³⁵⁾ 이광수의 『흙』은 『무정』과 함께 도산 안창호의 무실역행 사상을 작품화한 일종의 자본주의 비판서로서 자본주의에 의해 해체되어 가는 농촌공동체의 현재를 넘어서 이상사회로의 진화를 꿈꾼 작품³⁶⁾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문학사에서는 『흙』이 부르주아 계몽사상의 작가인 이광수의 친일민족반역자로서의 계급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친일적 민족개량주의의 시각을 보여주는 작품으로 평가된다면, 남한에서는 식민지 농촌사회의 대안적 전망을 위해 민족주의적 시각을 지닌 지식인의 농촌계몽운동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농촌소설로 평가된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허송’이라는 지식인에 대한 평가의 차이에 기인한다. 즉 조선 민족의 현실에 대한 계급적 인식의 한계를 승인할 것인가의 여부가 작품에 대한 평가의 긍정성과 부정성을 가르고 있는 셈이다.

6. 결론

부르주아 계몽작가로서의 이광수는 1920년대 프롤레타리아계급의 문학을 앞세우는 초기의 북한문학사에서는 외면되거나 비난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문학사적 공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보다는 부르주아계급의 세계관과 민족의식을 강조하는 이광수의 지적 편력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자연스러웠던 셈이다. 하지만 북한에서 1980년대 중반 이래로 표방된 ‘우리민족제일주의’라는 민족 담론의 강조는 문학적 전통과 유산의 자리를 복원하는 방향으로 문학적 외연을 넓히고 있다.

35) 권은, 「이광수의 지리적 상상력과 세계인식-이광수의 초기 장편 4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6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3, 5~38면.

36) 방민호, 「장편소설 『흙』에 이르는 길-안창호의 이상촌 담론과 관련하여」, 『춘원연구학보』 13, 춘원연구학회, 2018.12, 35~74면.

이광수의 네 편의 장편소설에 북한문학의 입장은 남한문학과의 접점을 마련하면서도 여전히 시각과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이 남과 북의 70년 넘은 분단체제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개척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혁명가의 안해』와 『흙』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북한문학의 인식이 남한문학에서의 다층적 평가와 사뭇 다른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무정』에 대한 남북한의 시각 차이는 많은 부분 좁혀지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것은 근대문학의 전통을 계급문학으로 한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학적 외연의 축소가 문학적 전통의 왜소화를 가져왔다는 북쪽 내부에서의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문학적 전통의 공과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록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북한의 문학사가 기술되고 있는 셈이다.

필자의 연구에 따르면 이광수의 『무정』에 대해서는 북한 문학사에서 문학적 평가의 객관적 공정성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평가가 전환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근대적 장편소설의 효시’에 해당하는 문학적 공적을 외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척자』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지닌 수령형상문학적 관점은 비판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필요하다. 서사적 한계에 대한 문학적 평가보다 지도자의 교시나 말씀이 문학적 평가의 척도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1930년대 ‘군상’을 다룬 『혁명가의 안해』는 ‘반공’을 화두로 삼은 작가의식의 한계를 보여주는 풍자적 텍스트로 해석할 필요가 대두된다. 『흙』에 대한 ‘친일 민족개량주의’라는 작가주의적 비판은 ‘민족주의적 계몽의식’이 지닌 이면성을 포괄하는 평가로 복원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광수의 초기 문학에 대한 북한문학사의 인식의 변화는 남북한 문학의 접점을 확인하는 대목이지만, 이광수 후기 문학에 대한 비난과 비방은 문학적 수사를 팔호치고 정치적 목소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재고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다.

이광수의 문학은 남이나 북에서 문학적 공과와 지식인의 책무를 무겁게 성찰하게 만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하지만 그런 점에서 오히려 공동연구가 필요한 저자이자 텍스트라고 판단된다. 남북 공히 이광수의 문학을 팔호치고 고서는 근현대 문학사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근대문학의 태동기를

연구하기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이광수와 그의 문학은 한반도 남단과 북단에서 지속적으로 호명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다.

참고문헌

1. 기초자료

- 이광수, 『무정』(1917), 우신사, 1979.
- 이광수, 『개척자(이광수 전집 제1권-무정/개척자/초기의 문장)』(1918), 삼중당, 1964.
- 이광수, 『혁명가의 안해』(1931), 우신사, 1979.
- 이광수, 『흙』(1932), 우신사, 1979.

2. 참고자료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1』, 민음사, 2002.
- 권 은, 「이광수의 지리적 상상력과 세계인식-이광수의 초기 장편 4편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6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3, 5~38면.
- 김영민, 「남·북한에서의 이광수 문학 연구사 정리와 검토」, 『동방학지』 83권,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994, 157~192면.
- 김영민, 『『개척자』 다시 읽기』, 『사이』 제18호,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5.
-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 1, 2』, 숲, 1999.
- 김윤식·정호용, 『한국소설사』, 문학동네, 2000.
-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강좌, 『조선문학사』 2,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71.
- 김정일, 『주체문학론』,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재용·이상경·오성호·하정일, 『한국근대민족문학사』, 한길사, 1993.
- 김하명·류만·최탁호·김영필, 『조선문학사』(1926~1945),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김현, 「이광수와 주요한의 문학사적 위치」, 김윤식·김현, 『한국문학사』, 민음사, 1973.
- 류만·리동수, 『조선문학사』 7,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2000.
- 류만, 『조선문학사』 9,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5.
- 방민호, 「장편소설 『흙』에 이르는 길-안창호의 이상촌 담론과 관련하여」, 『춘원연구학보』 제13호, 춘원연구학회, 2018.12, 35~74면.
- 방연승,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주체문학론』에서 독창적으로 밝히신 주

- 체의 문예관에 대하여], 『조선문학』, 1993.2.
- 서동수, 「북한문학사 기술의 정치성 연구: 혁명적 문예전통의 변모를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제26집, 겨레어문학회, 2001, 215~246면.
- 안함광, 『조선문학사』, 교육도서출판사, 1956(한국문화사, 1999)
- 오태호, 「북한문학사의 근대소설에 대한 인식론적 변화 양상 고찰-『조선문학사』 7(2000)의 1910~1926년 시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50, 민족문학사학회, 2012, 399~423면.
- 오태호, 「이광수의 『무정』에 대한 북한문학의 문학사적 인식의 변화 양상 고찰」, 『현대소설연구』 67, 한국현대소설학회, 2017, 149~174면.
- 유문선, 「최근 북한 근대문학사 인식의 변화 - 『현대조선문학선집』(1987~)의 ‘1920~30년대 서산’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5, 민족문학사학회, 2007, 407~436면.
- 이기영, 「변절자의 아내」, 『신계단』, 1933.5.
- 이상진, 「불안한 주체의 시선과 글쓰기: 1930년대 남성작가의 아내표제소설 읽기」, 『여성문학연구』 제37호, 한국여성문학학회, 2016, 129~169면.
- 이선경, 「김정일-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방 전 문학 연구-『조선사회과학학술집(2009~)』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8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2018, 101~146면.
- 이예찬, 「북한에서 춘원의 위상은 왜 변화하였나?-1956년부터 2013년까지 조선문학사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8.
- 주요한, 「작품해설」, 이광수, 『흙』, 우신사, 1979, 511~518면.
- 한중모·심경섭, 『조선근대소설사』, 사회과학출판사, 2013.
- 황정현, 「북한문학사의 시각과 이광수 연구사-『조선문학개관』 이후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6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6, 375~403면.

■ Abstract

A Study on the Difference of Literary and Historical Percep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on Lee Kwang Soo's Full-length Novel

-Heartlessness, Pioneer, The wife of the revolutionary, The soil

Oh Tae-ho

This article is based on the evaluation of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on Lee Kwang Soo literature that changed from 'bourgeois rebellion' to 'bourgeois enlighte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literary percep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on Lee Kwang Soo's 4 novels. The change in the evalua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on Lee Kwang Soo literature is a barometer showing the literacy rigidity and flexibility of North Korean literature. Since the mid-1980s, the evaluation of Lee Kwang Soo literature has changed from the object of exclusion to the object of reinstatement. Since the liberation and division, the criticism of the artist, who was named "the author of bourgeois rebellion," is transformed into a "bourgeois enlightened writer". This shows that we are moving toward restoring objective fairness.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differences of the two Koreas' perceptions about the aesthetic characteristics of texts, focusing on North Korean literary historical evaluations of Lee Kwang-Soo's novels. Specifically, we examined the specificity of literary historical viewpoints in North Korea centered on texts such as *Heartlessness, Pioneer, The wife of the revolutionary, The soil*. In addition, the aesthetic evaluation in South Korea was discussed together. Therefore, it revealed the difference of the microscopic interpretation of Lee Kwang Soo literature works of North and South Korean literature. This work is to identify the difference of

literary perception between the two Koreas on the same text. And it corresponds to the work of pre-semanticizing the methods and perspectives of text studying the litera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in the coming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The critical evaluation of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is based on the distinctive realism of "subjective reality". South Korean researchers use a variety of evaluation criteria ranging from literary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to popularity, style and aesthetics. When these two perspectives are included together, it is possible to analyze and evaluate stereotyped Lee Kwang Soo literature.

The posi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in Lee Kwang Soo's long-story novel sets the point of contact with the South Korean literature but still shows the difference of perspective and viewpoint. It is also a part of the reality of the divided system of the South and the North over 70 years. The positive evaluation of the *Pioneer* and the critical evaluation of *The wife of the revolutionary* and *The soil* show that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n literature is different from the multilayered evaluation in South Korean literature. However, it is confirmed that the difference of view between the two Koreas regarding *Heartlessness* is narrowed a lot. It is presumed that there was a problem that the reduction of the literary outgrowth which occurred while limiting the tradition of modern literature to the class literature within the North Korean literature led to the diminution of the literary tradition. As a result, North Korea's history of literature has been described in a positive direction that records the lessons of literary tradition objectively and fairly.

Key words: Lee Kwang Soo, Lee Kwang Soo's literature, inter-Korean literature, literary and historical perceptions of the two Koreas, *Heartlessness*, *Pioneer*, *The wife of the revolutionary*, *The soil*

접수일: 2019년 6월 30일

심사일: 2019년 7월 30일

게재확정일: 2019년 8월 10일